

# 학술분야소식

## ◆ 학술위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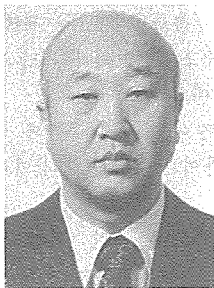
▣ 協會大賞(학술상)에 서울대치대 張完植교수,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 치대 양홍서 교수로 결정

1. 올해의 협회대상(학술상)은 張完植교수(서울치대)가 신인 학술상은 梁洪瑞조교수(전남치대)가 각각 수상하게 되었다.

齒協은 지난 5일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특별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금년도의 협회대상(학술상)은 張完植씨에게 신인학술상은 梁洪瑞씨에게 수여키로 결정했다.

장완식교수는 45년 京齒專을 졸업한이래 줄곧 모교인 서울치대에 몸담아오면서 77, 78년 서울치대 부속병원 원장을 지냈고 65~67년, 73~75년, 77~79년 3차례에 걸쳐 보철학회 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張교수는 「88년 정년까지 1년반 남았다. 오랫동안 학교에 몸담고 있어 수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겸손하게 수상소감을 밝혔다.



(張完植 교수)

신인학술상 수상자 양홍서조 교수는 81년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금년 8월 서울치대에서 치과보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남치대에서 학생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齒協은 시상장소와 일자리는 추후 결정키로 했는데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2백만원이, 신인학술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齒協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전국 10개치대 학장들과 협회 학술관계 임원들을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특별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바있다.

▣ 대한구강병리학회 제 33 차 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에 趙畿鎬 선임.



(신임 趙畿鎬 회장)

대한구강병리학회 제33회 정기총회가 지난 28일 서울치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구강병리학회는 이날 총회에서 임기를 마친 林昌潤씨의 후임회장으로 趙畿鎬씨를 선출하는 한편 총규모 3백만원의 87년도 예산안을 수정없이 통과 시켰다

한편 부회장에는 김규문씨와 呂寅行씨가 선출되었으며 朴允秀씨와 金顯豊씨는 감사에 유임 되었다.

趙신임회장은 자신의 재임기간중 ▲장부기제를 통한 회무의 체계화를 기하고 ▲전국 10개 齒大의 구강병리학 교과과정 및 내용을 통일하겠다고 앞으로의 사업체

회를 밝혔다.

총회에 앞서 열린 학술회는 1,2부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는데 1부 학술집담회에서는 서울치대 김진명氏의 「MBA 도포루 마우스 구강점막의 T-임파구 변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 등 5편의 원저가 발표되었으며 2부 진단 구강병리토론회에서는 79세의 남성의 Walnut sized cheek mass 등 7개의 임상적 증례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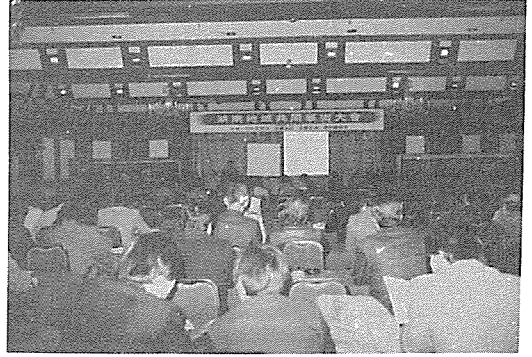
〈前 치협회장 金東順박사의 격려사와 총회장면〉

▣ 호남지역 세 지부 공동주최 종합 학술 대회 개최

光州直轄市 齒科醫師會(會長·黃海淳)가 主管하고 湖南地域(光州·全南·全北) 3個支部가 共同主催한 湖南地域共同學術大會가 지난 11월 27日 光州市 88名, 全南 60名, 全北 60名 등 210여 會員과 齒協學術理事가 참석한 가운데 新陽파크호텔 大宴會場에서 實施되었다.

오후 2시부터 始作된 共同學術大會에서는 한경운 教授(조선齒大 치주과장)의 「교정 및 보철치료에 있어서의 치주 치치적 고려」의 3편의 강연이 있었으며 뒤이어 배풀어진 光州直轄市 支部昇格의 祝賀와 湖南地域齒科人들의 우호를 다지는 親善의 晩行事를 겸한 만찬회에서 全南의 歷代會長들이 初代부터 21代까지의 順으로 차례에 따라 꽃목걸이를 돌려가며 서로 목에 걸어주며 그간의 勞苦에 감사하였으며, 후배會員들은 아낌없

는 축복의 박수로 元老선배 會員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였다. 노래와 장기자랑으로 흥을 돋우기도 하였으며 各 支部의 發展에 더욱 증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3개지부 합동 종합학술대회장면〉

▣ 대한치과보철학회 제 29 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성료

지난 29日(土) 大韓齒科補綴學會(會長·李東燮)에서 대전시 소재 유성관광호텔에서 第29回 大韓齒科補綴學會 定期總會 및 學術大會를 개최하였다.

學術大會에 앞서 벌어진 定期總會에서 이영옥·안규소 會員에 대해 공로표창장이 수여되었으며, 금년도 대학 박사학위취득자에 대한 8명의 학술표창장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곧 이어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서울대 박현식教授의 「복합레진계 시멘트로 식각된 비귀금속 합금과 범랑질을 접착시킨 경우의 접착 인장강도에 관한 研究」의 19편의 강연이 있었으며 이영옥 博士(前 齒協會長)의 좌장으로 최대균教授(경희齒大)의 「Telescope Retainer를 이용한 국소의치임상」·고석훈 教授(前 미취간 齒大 임상교수)의 「Deep Over bit Occlusion」 등의 特別講演이 있었다.

▣ 대한치과보존학회 제 46 차 학술대회

大韓齒科保存學會(會長·李正祜) 제46차 學術大會 및 리차드 E. 윌튼교수초청강연회가 지난 29日 서울대학교 大學病院 A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초청강연회장에는 사전 등록과 현장 등록회원 1백 80여명이 참석하여 윌튼교수의 강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초청강연회의 연사로 초청된 리차드 E. 윌튼교수는 美國 아이오와 齒科大學의 근관치료학 과장과 IADR, Pulp biologie group 책임자, 미국 근관치료학 전문의

심사위원장, 미국근관치료학회지 편집위원등의 굵직한 지함을 갖고 있는 근관치료학계의 권위자이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서 윌튼교수는 「임상 근관치료학 영역의 새로운 개념 및 동향」과 「치관 수복체에 대한 치수조직반응의 최신지견」에 대해서 강연하였다.

또, 서울 齒大 세미나에서는 각 치과대학 博士學位論文 3편과 碩士學位論文 6편이 각각 발표되었다.

▣ 경남·공직공동주최로 학술대회 개최

慶尙南道齒科醫師會와 公職齒科醫師會에서는 이날 16日(日) 馬山롯데 크리스탈 호텔에서 共同學術大會를 개최하였다.

부산市會員 1名을 포함하여 경남 137名, 公職 3名 등 140여 會員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學術大會에서 李仁昌會長(慶尙南道齒科醫師會)은 인사말을 통해 公職齒科醫師會와 함께 共同學術大會를 개최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하고 특히 今年에는 協會의 綜合學術大會가 없는 해인 만큼 規模는 작으나 共同學術大會를 갖게 된것이 앞으로 보다 성대한 學術大會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볼때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林昌潤會長(公職齒科醫師會)은 現代 科學文明의 發達은 齒科醫療界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전제하고 近來에 들어 많은 會員들이 補修教育이나 學會等에 참여하고 있음은 學問의 慾求가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처음 시도되는 支部聯合 學術大會인 만큼 미흡한 면도 많이 있다면서 이번 學術大會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시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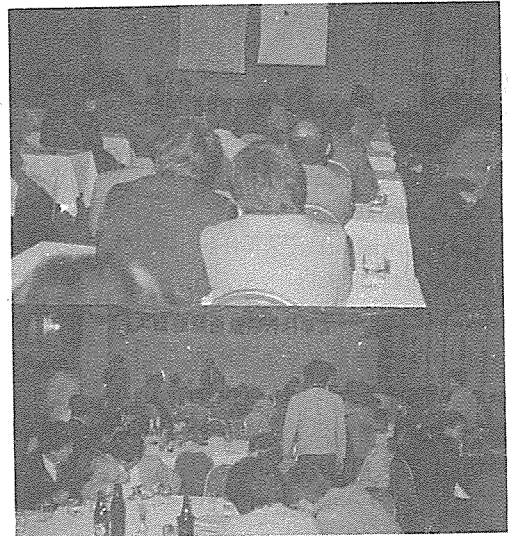
개회식후 孫性熙教授(시울大學校 齒科大學)의 「齒周治療時에 考慮할 審美性」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고 증식후에는 鄭晋教 會員(鄭晋教 齒科醫院)의 固定義齒

에서 考慮할 審美性의 2편의 特講이 있었다. 林昌潤公職齒科醫師會長은 네번째 연사로 등장하여 「口腔軟組織疾患」이란 주제하에 2시간 가량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이번 學術大會에서는 가자제전시회는 새락하여 순수한 學術大會로 일관하였다.

▣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대한악안면 성형외과학회(회장 李相喆)에서는 지난 12월 6일 부산코모도호텔 충무홀 회의실에서 1986년도 추계 학술대회를 성대히 마쳤다.

130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상철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림대 의학부 치과학교실 이진주 박사의 「구강영역에 있어서 hydroxyapatite의 응용」에 대한 특별강연을 위시하여 전북 치대 신호근 교수 및 한림대 조병욱 과장 등 3개특별강연과 36개의 일반연계가 발표되는등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학술대회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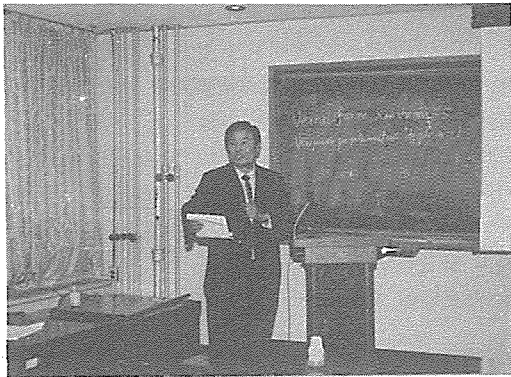
<학술대회장면>

▣ 국제치과의박사회(I.C.D) 한국부회 총회 세계에서 11번째로 한국 인준받아

國際齒科醫學士會(I.C.D.) 韓國部會 創立 認准 및 認證式과 韓國部會 總會가 지난 22일 오후 6시 힐튼호텔에서 開催되었다.

I.C.D. 곤잘레스(Primo E. Gonzales)會長과 프랭크린 M. 켄워드(Franklin M Kenward) 事務總長等 1백 50여명의 각국 I.C.D. 會員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認准式으로 韓國은 世界에서 11번째 部會로 認准되었다

또, 이날 認證式에서 李鍾甲교수(延世齒大·병원장) 등 12명의 신입회원에 대해 認證書 및 Key傳達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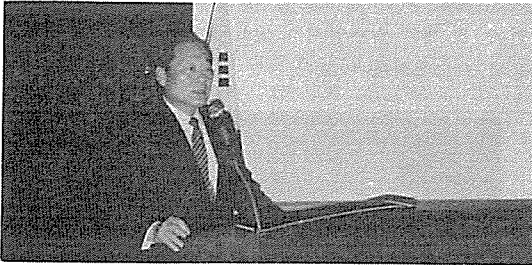


<공직회장 林昌潤교수의 강연장면>

한편, 속개된 韓國部會總會에서 池憲澤氏가 韓國部會  
 長에 李亨秀氏가 韓國部會 事務總長에 각각 피선되었다

또 이날 1시부터 열린 학술대회에서 케워드 I.C.D事務  
 總長이 I.C.D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후 미  
 시간齒科大學의 George E. Myers교수가 「Current  
 Concepts and Future Direction of Crown and Bridge  
 Prosthodontics」에 대해서, 愛知學院大學齒學部 第2口  
 腔外科教室의 河合幹교수가 「Current Surgical Opera-  
 tion and Team Approach for Treatment of Cleft,  
 Lip and Palate」에 대해 慶熙齒大 崔榮喆教授가 「Func-  
 tional Adaptation of T.M.J.」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 W.H.O. 후원 워크샵 개최에 따르는 신  
 민철 치협회장의 격려사



〈申旻澈치협회장의 격려사〉

오늘 保健社會部 主管으로 세계보건기구의 후원을 얻  
 어 大韓口腔保健學會가 주최하는 口腔保健事業開發워크  
 샵을 진심으로 祝賀하여 오늘의 이 研鑽會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口腔保健實態를 분석  
 하고 醫療資源의 효율적인 활용을 모색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口腔保健向上과 궁극적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보건  
 소레벨에서의 가장 합리적인 口腔保健事業과 진료업무  
 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여 口腔疾病의 예방과진료서비스  
 의 원활한 供給方案을 마련하려는 노력에 대해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농어촌지역 주민의 구강보건과 의료공급 체  
 계를 조직·인력·예산면에서 종합적으로 당사자가 합  
 계 검토하게 된것은 晩秋之恨이 있으나 매우 획기적이  
 며 고무적인 일이라닐 수 없으며 더욱이 1988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의의있는 행  
 사로서 보사부 李晟雨醫政局長을 비롯하여 세계보건기  
 구 西太平洋지역위원회의 Dr. Deong, 국내 齒醫學界의  
 중진교수와 지방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구강보건사업은 아직도 시범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齒科疾患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불만족스러운 실정입니다.

齒牙우식症을 經驗한 사람이 都市에서 98.7%, 農村  
 地域에서 94%의 高率을 占하고 있음에도 永久齒에 대  
 한 充填處置率은 大都市에서 13%, 農漁村地域에서 12.5  
 %에 不過하여 全國民에 대한 口腔保健事業과 醫療서비  
 스의 필요성은 擧論할 여지가 없으며 한편으로는 合理  
 的인 供給體系의 確立이 얼마나 切實한가를 斷的으로  
 表徵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齒醫인력은 女子齒科醫師 6백명을  
 포함하여 약 6천명에 달하며 그중 開院醫는 56%, 軍醫  
 官·教育機關 근무자 6백38명 약 11%, 농어촌보건진료  
 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근  
 무중인 공중보건 齒科醫師가 6백11명으로 약 10%, 해  
 외 이주 2백51명, 기타 8백61명, 19%이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2천51명(67.5%) 中도시에 6백52명(21.8%)郡  
 단위 이하에 3백20명(10.7%)가 각각 분포되어 있으며  
 全齒醫의 약 90%가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대도시집중현  
 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86년도의 齒科醫師對比人口는 7,002명으로 國民所  
 得과의 相計分析에 의한 供給水準으로는 比較的 適切하  
 다고 思料되나 1987년도부터는 全國 10個 齒科大學에서  
 매년 8백명의 卒業生이 輩出되어 2000年度の 人口對比  
 는 約 2千명으로 推計되어 齒科醫師의 供給過剩現象이  
 豫상되고 있습니다만 1988년부터 實施되는 全國民醫療  
 保險計劃이 예정대로 農漁村地域부터 蹉跌없이 시행되  
 는 때에는 農漁村地域住民에 대한 口腔保健事業과 齒科  
 診療事業이 制度的으로 保障되어 현재와 같은 齒科人力  
 의 郡農間의 隔差나 開院醫偏重現象은 자연히 調節되거  
 나 해소될 것으로 展望됩니다.

여러분께서도 周知하시는 바와같이 우리는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통하여 정부의 福祉政策은 더욱 擴大될 것  
 이며 정부의 口腔保健事業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淸州鎭海市등 2個都市의 上水道水弗化事業을 비롯  
 하여 725個學校 32萬6千명에 대한 弗素溶液養齒事業이  
 全國民口腔保健事業으로 확대되고 앞으로 全國民醫療保  
 險實施와 보조를 맞추어 口腔保健事業과 診療서비스는  
 순조롭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口腔保健政策의 目標은 치아우식症 및 齒周疾患 등을  
 예방하고 환자를 早期發見하여 국민의 口腔健康을 實現  
 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위한 公衆口腔保健事業(手段)을  
 개발하고 훈련된 人力을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효율  
 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捷徑이 될 것  
 입니다.

大韓齒科醫師會는 앞으로 公衆口腔 保健사업의 개발  
 과 口腔疾患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해 보건사회부  
 를 비롯하여 勞動部 기타 有關機關과 團體 그리고 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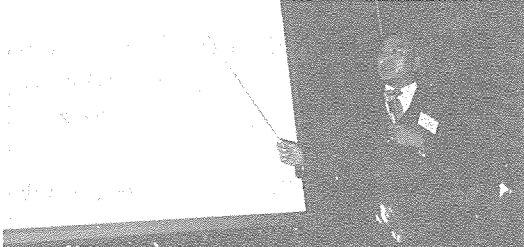
학계, 치의료인,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實効를 거두도록 最善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구강보건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연찬회를 主會해 주신 보건사회부당국과 세계보건기구, 대한구강보건학회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研鑽會에서 주제를 발표해 주신 李晟雨보건사회부의 정국장, Dr. 嬴희태응, 金주환 한국구강보건협회이사장, 金중배 서울치대교수, 경희치대 최유진교수, 원광치대 金南奎학장과 그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며, 구강보건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事例와 사업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 토의하여 주신 보건소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의 열성과 노고에 대해 각별히 감사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이 口腔保健 사업開發研鑽會가 우리나라 口腔保健醫療政策을 具體化하는 分水嶺이 되고 특히 落後된 農漁村地域住民에 대한 口腔保健豫防事業과 治療事業을 가장 合理的으로 효과적으로 遂行할 수 있는 模型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希望하는 바입니다.

1986年 11月 27日

大韓齒科醫師協會 會長 申旻澈



〈워크샵이 열리는동안 각종 강연, 분임토의, 사례발표, 건의문 채택 등등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좌장 김주환박사(上)와 김중배교수의 강연(中) 분임토의(下)〉

## ▣ W.H.O. 후원 워크샵 개최에 따르는 주제발표

### 보사부 이성우 의정국장의 「구강보건정책」



〈李晟雨 보사부 의정국장〉

구강보건정책개발의 기본방향으로는 가능한 구강 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강화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구강질환을 초기단계에 치료하기 위한 학교계속구강 건강관리사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지리적 경제적 제약없이 누구나가 발생된 구강질환을 균등하게 치료받기 위해서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치과 의사와 치과위생사 등의 구강보건 인력을 확대배치함과 아울러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전 국민 의료보장 정책개발이 절실하게 되었다.

#### (1) 상수도 불소화사업

우리나라도 상수도불소화 사업개발을 위하여 1979년 보사부내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구강보건사업 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준비과정을 거쳐 1981년 진해시의 상수도물을 처음으로 불소를 투입하고 이듬해 1982년에는 정주시의 상수도물에 불소를 투입하였다. 그리고 1985년부터 매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상수도불소화 사업의 효과를 측정 평가하고 있다. 1985년의 제1차 평가 결과 조사당시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6세 아동들에 대한 치아우식(충치) 예방효과는 진해시거주 아동에서 대조지역(수원시) 아동에 비해서 45.8%로 나타났고 사업기간이 3년이 경과한 청주시에서 34.7%로 나타났으며 1인당 연간 소요비용은 진해시에서 92원, 청주시에서 1백22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비용에 비하여 그 효과가 지대하므로 제6차 경제사회발전계획(87~91) 중에는 일부 여타 도시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2) 국민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이후 한국구강보건협회가 전국에 13개 국민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이담기교육 및 구강질환 예방효과가 탁월하여 1983

년에는 보건사회부의 정책사업으로 채택되었다.

1986년 현재 전국에 725개 군단위 국민학교에서 32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1989년에는 군단위 지역 이하의 전국민학교 아동 모두가 이사업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연간 1회 정도하는 것으로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고 학교에서 매일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교부 관계관과 일선 국민학교 및 보건소 관계인들의 좀더 적극적인 사업지도가 요망된다.

### (3) 학교계속구강 건강관리사업

우리나라 14세 아동에서 발생된 우식치아(충치)중 치료를 받은 충진치치율은 대도시 아동에서 10.5%이고, 농촌아동에는 겨우 4.3%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학교 아동들의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계속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채택하여, 보건소의 치과 의사와 치과 위생사로 하여금 국민학교 아동에게 구강진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 사업의 개발로 말미암아 보건소내에서 소극적으로 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내의 구강진료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진료를 하게 됨으로서, 구강보건사업에 일대전기를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보건소 행정과 치과 의사와 치과 위생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으므로, 이제 아동들의 구강보건을 위한 관계인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청된다.

### (4) 구강진료의 균점화

우리나라 인구중 약 6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비해 치과 의사의 89.3%(1985년 현재)가 도시에 편중되어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 있다.

따라서 1979년부터 정부는 의료취약지 진료기관과 전국 시·군보건소에 공중보건치과 의사를 배치하여 왔으며, 1986년에는 4백13개 보건지소에 까지 확대 배치하고 구강진료대(치과유닛)를 비롯한 구강진료기자재를 공급하였다. 보건사회부는 앞으로 매년 2백개의 보건지소에 치과 의사를 배치하여 1989년에는 전국 1천3백3개소의 보건지소중 1천2백개 보건지소에 치과 의사를 배치하고 구강진료기자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1986년부터 학교구강보건 사업등의 구강보건사업지도와 구강진료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1백88개 전 시·군보건소에 치과 위생사를 배치하였다.

한편, 보건소의 구강보건실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치아발거, 우식치아(충치) 충진등의 간단한 진료위주로 구강진료를 제공하여 왔으나, 지역사회 대다수의

장년층 인구가 치아를 상실하고도 지리적, 경제적 제약으로 치아보철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987년부터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치아보철진료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방침이다.

1986年 11月 27日

保健社會部 醫政局長 李 晟 雨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보사부에 대한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다.

### ■ 건의문

1. 치과 의사와 치과 위생사가 확보되지 않은 대도시보건소에서 도치과 의사를 충원하고 치과 위생사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치과 의사의 구강진료보조를 담당할 구강진료보조원제도를 개발하여 보건소에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지소에도 치과 위생사를 배치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휴대용 구강진료장비를 공급하여 계속 학교 구강건강 관리사업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 구강보건교육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구강보건교육의 목적, 목표, 교육내용 등을 개발하고 교육매체를 제작하여 해당기관에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학교 교육과정에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내용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치과대학 및 전문대학치위생과 교육과정에 구강병 예방진료 실습교육 및 지역사회구강보건 현장실습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8.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기술지도를 위한 기술지도소도시와 군단위 보건소에 한정하지 말고 대도시보건에까지 평등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시도단위에 구강보건사업기획 및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가구강보건사업을 기획, 조정 및 평가를 담당할 구강보건과를 보건사회부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